飾變形된 것인지 萬若 그렇다면 그 淵源이 어디 있는지에 對하여는 한번 考察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。 크기는 다음과 같다。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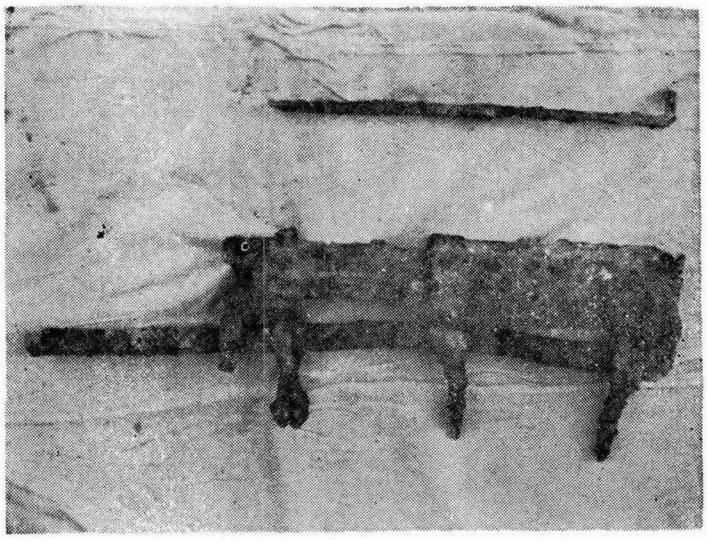
前輪 幅 四〇·五㎝ 高 二五㎝
後輪 〃 五六·五㎝ 〃 三〇㎝

〔附記〕

「前輪」「後輪」「海」「磯」等 日本通用語를 그대로 使用하였다

百濟 鐵製鎖金

洪 思 俊



五月初旬 扶餘郡 敎育課主管으로 扶蘇山美化의 一環策으로 軍倉址를 中心해서 三忠祠에서 雙北里後麓을 斜線을 그어 散策路를 開拓하는데(扶蘇山의 門外城址 안쪽으로) 俗稱 때재골을 에워싼 羅城의 東部城(뒤개)便 若干低陷된 地點에서 百濟當時의 것으로 볼 수 있는 鐵製鎖金具 一切가 路面作業中 出土되었다。 이 鎖金은 百濟國이 滅亡하던 때에 木造建物인 城門이 消失되고 城門에 달았던 鐵製의 鎖具만 地下에 一千餘年이나 埋沒된 것으로 推測된다。 當時 銘文瓦와 釜鼎으로 볼 수 있는 鐵片도 城門附近에서 若干 出土되었다。

四角진 자물통에 혀(舌)가 달린 자물쇠가 끼었는데 자물통머리에는 ㄱ字로 둥근 鐵棒을 (長 一·一七尺≒東魏 尺一尺에 近) 붙여 만들고 자물쇠 後尾에는 角진 鐵板에 圓孔이 뚫려서 자물통 鐵棒이 꿰여 있다。 이 자물통 鐵棒에는 아직도 門板木에 박아졌던 門쇠 二個(한개 鐵을 휘어 兩端이 尖함)와 다른 한쪽 門쇠가 달려 있다。 그리고 열쇠를 집어 넣어 열 수 있는 구멍이 자물통 머리 下部에 一字로 뚫여 있다。 이 鎖金이 出土된 附近에서 다시 열쇠로 볼 수 있는(長六·九寸) ㄱ字 鐵片이 나왔었다。

위와 같이 確實히 扶蘇山城 城門址에서 千三百年前의 百濟鎖金具가 發見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。 그러나 日政時에 扶蘇山에서 出土되었다는 同形의 鐵製鎖金의 一部分을 扶餘博物館에서 所藏하고 있음을 아울러 紹介한다。

昌慶宮 明政殿의 墨書銘

申 榮 勳

都提調」右議政 鄭昌行」例兼提調」兵曺判書 朴承宗」工曺判書 李尙毅」戶曺判書 李廷龜」提調」禮曺判書 李爾瞻」判尹 李沖」戶曹」叅判 張晩」刑曺叅判 □□□」兵曺叅判 李 □」中使」花城君 趙龜時」內侍府 尙膳 金逸」都廳」司□寺□ 趙有道 □言正郎 權弘道」□□」——以下 十行未詳——□□ 李欽」□□主簿 趙□□」□□□ 鄭敏□」判事? □ 李□□」□□□ 韓濟?演」□□ □□」義□□奉事 具□洵」豊儲倉奉事 鄭文晦」前叅奉 李晨?英」前司□ 李義崇」前司□ 金櫨」萬曆四十四年二月

(向右側합각머리內側、長九尺、高一·一尺의 板子에서 發見、墨書、楷字、字徑 一寸 一九六三年六月 明政殿 及 同 廻廊 重修時 發見)